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매 하이텔(ID) ; KHUNEWS
◇보낼곳 : 서울·수원〈본사편집실〉천리안(ID) ; KHUNEWS

교내 환경문제 심각 애교심으로 학교아껴야

도서관의 책들을 살펴보면 낡은 책들이 대다수이다. 어떤 책은 심하게 닳고 낡아서 읽기조차 거북한 경우도 있다.

"우리 도서관에는 양서가 부족하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는 책들은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는 듯하다. 많이 읽혀 닳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책장이 찢어지고 낙서가 되어 있는 책은 '우리의 것'이라는 주인정신이 없어서일 것이다.

또 학생회관은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므로 금방 지저분해진다.

이른 아침부터 미화원 아주머니들이 청소를 하신다. 한밤중까지 학생들이 쓰레기를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동아리방이 있는 쪽엔 토사물이 창가에 있기도 하다.

우리도 학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가 아닐까 싶다.

이 지 석
〈자연과학대 유전1〉

투병학우 위하는 손길 훈훈한 학우애 감동적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건강이 최고'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람이 사는 데에 있어서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우 하나가 신장병에 걸려 수술을 해야 하나 수술비가 모자라 입원조차 못하고 있다는 딱한 사정을 전해 들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가난의 아픔까지 맛봐야 했을 그 학우를 생각하니 마음이 참 아팠다.

게다가 그 학우는 즐기고 노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는 대학생들이 늘어가는 요즈음 서른이라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문에 열을 올리는, 외무고시 1차 합격증까지 받아낸 성실한 학생이라는 소리까지 들려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마침, 그 학우가 다니는 영문과 학생회에서 머그잔과 볼펜을 판매하는 모금운동을 벌이고, 하루주점도 여는 등 그 학우를 돕기 위한 노력들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행스러웠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은 처지가 어렵게 된 학우가 있으면 으레히 돕는 요식적 행위가 아니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우로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요즘 학교 분위기는 참 따뜻하다.

일단, 계획된 모금운동은 끝났기 대문에 아무래도 도움의 손길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긴 시간동안 벌인 운동도 아니었기에 모금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래서 더 지속적으로 모금운동이 벌여지길 바란다.

이번 모금운동 진행요원중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타 단대의 장애인학우도 있었다고 들었다. '동병상련'이라고, 그 학우의 행동도 참 감동적이었다.

이번 일로 우리는 학우간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본다. 모든 학우가 언제나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김 희 수
〈국문 1〉

호출기 보급 확대 해피콜 설치 필요해

21세기에는 정보통신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국가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고들 한다. 요즘만 하더라도 어느 기업이거나 정보통신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만큼 정보통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혀가는 실정이다.

또한 정보통신에 관련된 많은 사항들이 이미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그 예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선풍을 일으키는 인터넷, 그리고 국내에서는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등의 컴퓨터 통신에서 휴대폰, 호출기 등의 이동통신, 텔레비젼, 라다오까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우리와 가장 친숙하다 말할 수 있는 호출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요즘 대학신입생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호출기를 가지고 다닌다. 호출기는 바쁜 현대인의 생활에 대단히 편리한 '문명의 이기'이지만 호출후 전화를 받을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3천원정도의 비싼 차값을 내가며 전화를 받아야만 한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 바로 '해피콜'이라는 것이다.

타 학교에는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다고 들었다.

이용방법은 해피콜 기계에 있는 전화번호로 상대방에게 호출하면 호출받은 사람이 자신의 호출번호 뒷자리 4개를 입력하면 호출한 사람이 식별하여 받도록 되어 있다. 한마디로 길거리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해피콜이 설치된다면 매시간 마다 공중전화기 앞에서 길게 늘어선 학생의 수가 적어질 것이며, 급한 용무일 경우 굳이 커피숍까지 가지 않더라도 학교내에서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하루속히 해피콜이 학교내에 설치되어서 보다 효율적인 생활을 누리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최 지 연
〈문리대 생물1〉

LAN! 개인용이 아니예요

—LAN의 연결방식과 사용시 주의점

글신는순서
1. LAN이란 무엇인가
2. 학교 네트웍과 전산실의 구성
3. Telnet, ftp의 활용
4. Netscape의 설치와 활용

성 연 중
〈전자계산공학과 석사4기〉

이 글은 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전산망 구성과 학교내에서의 인터넷 활용, 전산실 이용에 있어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연재하게 되었으며 기타 문의점은 천리안, 하이텔 〈KHUNEWS〉, 〈E-mail : khunews @nms.kyunghee.ac.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공대에 있는 학생들은 화장실, 강의실 위에 지나가는 노란색의 케이블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Thick Cable"이라 불리는 백본 케이블이다. 공대는 이러한 케이블로 1층부터 5층까지 칭칭이 둘러 쌓여 있다. 또한 공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것을 대비하여 건물을 좌, 우로 분리하여 연결하여 많은 사용자에 대비하였다. 또한 건물과 건물사이는 광 케이블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때 사용한 랜 방식은 FDDI라는 방식을 이용, 100M BPS의 고속전송을 한다. 이러한 학교 랜은 서울은 한의대에 있는 전산소, 수원은 도서관에 있는 전산소에서 각각 56K BPS라는 전용회선으로 연결된다. 서울과 수원사이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56K BPS 두 선과, 2.4K BPS 한 선을 쓰고 있다. 56K BPS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28.8K모뎀의 두배가 되는 속도이다. 또한 학교의 랜은 인터넷망과 연결하기 위해서, 서울은 우리나라 교육망인 Kreonet망과 56K BPS로 연결되어 있으며, 96년에 들어서서 수원도 한국통신의 Kornet망과 1.544M BPS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작년부터 몰아닥친 인터넷 사용량의 폭주로 서울/수원사이의 많은 정체현상이 조금은 해결되었다.

수원캠퍼스로부터 9600BPS로 연결된 DNS는 데이콤이 운영하는 패킷망으로 현재는 데이콤이 운영하는 천리안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된 우리 학교에서 랜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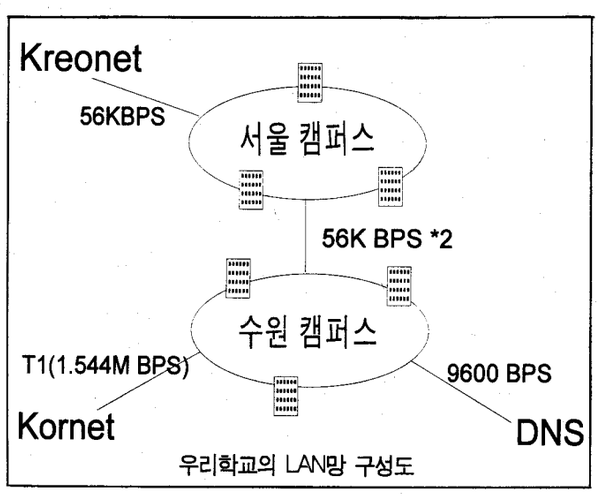
일단 학교의 랜에 연결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 이것을 "백본과의 연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우선 백본에 연결하는 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또한 연결하는 것은 전문가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산소에 문의를 해야 한다.

랜 사용자가 늘면서 건물마다 허브(Hub)라는 것을 설치하였다. 허브는 백본과 한번 연결한 곳에서 8~24명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중계기 같은 역할을 하는 장비이다. 이러한 허브는 각 단과대학의 전산실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교무실, 연구실, 교수님들의 방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각층에 1대정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허브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선 백본을 건들지 않고도 학교 랜에 연결할 수 있다.

일단 학교 랜에 연결을 하면 전산소에 신고/문의를 해야 한다. 전산소는 학교에 어느 지점에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된 컴퓨터에 IP 주소를 할당해 준다. 만약 전산소에 아무런 이야기 없이 랜에 연결을 하고, IP주소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연구실이나 혹은 전산실은 목적에 따라서 파일 서버나 프린터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파일 서버나 프린터 서버는 학교 랜에 많은 부하(트래픽)을 주기 쉽다. 따라서 파일 서버나 프린터 서버가 있는 곳은 사용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반드시 라우터나 혹은 스위칭 허브를 이용하여 학교 랜에 부하를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

랜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의 많은 양의 파일 전송이나 혹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



우리학교의 LAN망 구성도

우리학교 인터넷망은 Kreontet망과 Kornet망에 연결되어 있다

朔風 빰을 내놓고 다니는 남자들

'엿 먹어라'

이 말은 욕이지만, 그 뜻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다. '엿'이란 엿치기를 할 때의 그 엿이 아니다. 어느 사전을 살펴보면, 남사당패 여성들의 성기라고 적혀 있다.

이 정도 살펴보면 이 욕을 쓰기가 부끄럽게 느껴질 것이다. 상대방에게는 성적 모욕을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이 여성에게 이 욕을 사용한다면, 시쳇말로 레즈비언 짓거리를 하라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해 온 욕에는 여성을 멸시하는 것이 많다.

이런 여성하대 혹은 여성멸시의 언어풍조는, 욕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어에서 더 잘 나타난다는 사실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소위 뚜쟁이가 가끔 되기도 하는 나는 주로 우리 동기들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하다가 용건을 꺼내면, 한결같이 하는 첫소리가 바로 '예쁘냐?'이다. 그러면 나는 '응'이라고 말해놓고는 찝찝한 심정이 응어리진다.

소개시켜 줄 때마다 '예쁘냐'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이 여성 멸시 풍조를 분명히 나타내 준다. 보통 내 주위의 여성에게 남성을 소개시켜주면 처음하는 물음은 '능력있냐' 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능력을 말함은 물론이다. 이 경제적인 능력이란 소개받을 남성의 직장이나 학력 혹은 집안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잘 사는 집안의 남성이라면 상관할 것도 없지만, 잘 못 사는 집안의 남성이라도 자신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치부할 수 있다.

물론, 이것 역시 정작 중요한 개인의 인격과 성격을 무시하기 때문에 좋은 물음은 아니다. 하지만, 더욱 심한 것은 '예쁘냐'이다. 당연한 소리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얼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대학 시절 어떤 친구가 말한 것처럼 '원판 불변의 법칙'이 적용된다. 또한 왠만한 중산층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실패할 수도 있고 부작용도 있다.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 여성 멸시의 언어 풍조는 남성의 비어를 더 폭넓게 해준다. 여성인 아내와 남성인 남편이 서로 욕을 하거나 상대하면서 장난질을 칠수도 있다. '상감'을 '궁전'으로, '나리'를 '마님'으로, '마당쇠'는 '언년이'로, 'X끼'나 '놈'은 'X'로 하다가 보면, 가끔 더 심한 하대도 나오는데, 여성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 남성이 '이 놈에 여편네가!'를 하면, 받아 칠 말이 여성에게는 없다. 쉽게 떠오르는 '남정네'는 어감이 다르다. 굳이 만들자면 '이 놈에 남편네가'가 되지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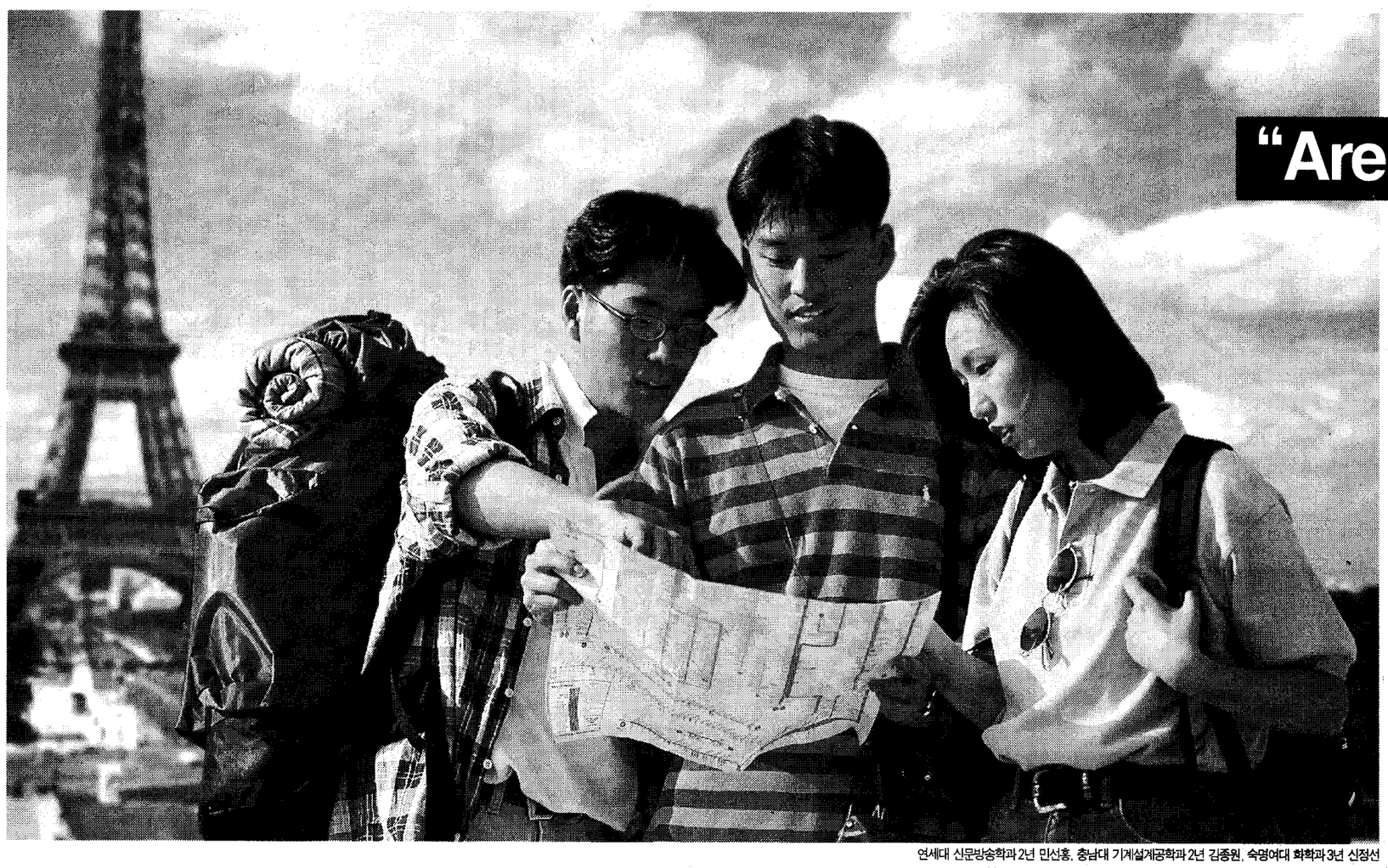
이러한 여성 멸시의 언어 풍조는 여성 멸시 풍조와 한 쌍이다. 언어는 생각에서 나오며 생각은 언어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조를 두고 여성차별이다, 여성학대다라고 말들 하며, 나아가서 페미니즘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건강한 남성들이라면 여성 멸시의 언어 풍조부터 반성해야 한다. 〈渴葉〉

경희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출연금의 많고 적음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출연하신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희사랑의 정성과 후원은 경희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탁자명단은 접수순입니다.(96.8.25~96.10.31)

△박정훈(명예교수) 5,000,000
△여직원회(회장 : 학적과 신인순) 2,400,000
△유용철(이천시 신둔면사무소 행정학과졸) 300,000
△김종회(문리대 국문과 교수) 1,00,000
△김재홍(문리대 국문과 교수) 2,00,000
△박재양(문리대 국문과 교수) 1,00,000
△김서령(문리대 수학과 교수) 2,00,000
△손재식(평화복지대학원장, 1차분) 1,000,000
△정병엽(경희여고 교장) 1,000,000
△김태범(총무과) 1,500,000
△장보연(신문방송국) 1,000,000
△박남규(건설부) 1,000,000
△유명희(건설부) 1,000,000
△김기철(건설부 건설주임) 1,500,000
△이도영(총무과) 1,000,000
△유주완(총무과) 500,000
△김을영(총무과) 500,000
△김동순(총무과) 500,000
△유병철(총무과) 1,000,000
△송강현(한의대 교무주임) 1,000,000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2년 민선홍, 충남대 기계설계공학과 2년 김종원, 숙명여대 화학과 3년 신정선

처음엔 나도 정말 화가 치밀었다.
내가 어딜봐서 일본사람같단 말인가
그런데 한 달 배낭여행 길에서 '한국사람이냐'고
처음에 묻는 외국인은 한 명도 없었다.

"Are you Japanese?"

어쩌면 그들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런 일인지도 모른다.
문화유적이라고 돌아본 곳마다 잘 정리되어
적혀있는 일본어설명을 볼 때의 착잡함,
상품설명서에 당당히 적힌 일본어안내.
아 국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억울하면 힘을 키워라!'
나라밖을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더니
나도 모르게 가슴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후배들이 배낭여행에 나설 때 쯤엔
'Are you Korean?'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
돌아오면서 배낭이 더욱 무거워짐을 느꼈다.

힘있는 조국을 위하여 —
한국의 힘, 유공

• 1962년 최초의 정유회사로 탄생, 1964년 석유류제품 국내 첫 생산
• 국내 최대의 정유회사로서 하루 61만배럴의 석유제품을 생산
• 우리나라를 알아 산유국의 대열에 서게한 1965년 북예멘 마리브광구 유전개발 성공
• 국내최초의 방향족제조시설과 나프타분해센터를 건설하여 현대산업의 기초가 되는 석유화학분야 개척
• 자동차 공해방지 연구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로 평가받는 경유차량 매연제거기술 독자 개발
• 189명의 환경전문가, 1조원의 환경투자를 통해 국내최고 수준의 환경관리 체계구축
• 찌꺼기 없는 휘발유 유공엔크린/21C 윤활유 21C/ 힘 좋은 경유 파워디젤

조국을 먼저 일류로 만들기 위한 유공의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힘—
주식회사 유공
SUNKYONG 鮮京그룹

★기획제작 : 유공홍보실담당 황인성/제일기획 제작기획, CD이동한 AE문재인·최규인 CW이귀남·이상은 GD김승연·홍요한